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7년 2월 5일(주일) 제1134호



사진은 지난해 온누리 목회사관학교

영혼을 살리는 리더

15기 목회사관학교 ... 온누리 목회자 340명 참석 2월 6일부터 9일까지 강의, 토론, 워크숍 이어져

2017 온누리 목회사관학교가 2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 동안 개최된다. 이번 목회사관학교는 '영혼을 살리는 리더'를 주제로 열린다. 온누리교회 목회자(전임, 파트) 34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온누리 목회사관학교에서는 이재훈 담임목사와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가 주강사로 강의한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목회사관학교 첫째 날과 둘째 날 '저녁에 영혼을 살리는 12'를 주제로, 이주연 목사는 목회사관학교

셋째 날 '예수의 가슴으로 불쌍히 여김'을 주제로 메시지를 선포한다.

또한 온누리교회의 비전을 공유하고 바람직한 리더십에 대한 토론이 이어진다. 이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하용조 목사 리더십 토크', '미니콘서트 with 이재훈 담임목사', 팀빌딩 '달란트를 위한 시간', '예수바보 콘서트', 그룹워크숍, 조별큐티나눔, 기도회, 트레킹(등산), 아웃팅 등을 준비했다.

온누리 목회사관학교는 온누리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축제다. 국내 온누리교회 목회자들과 해외비전교회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온누리교회의 비전, 목회철학, 사역 방향, 동역의 기쁨을 공유하고, 영적인 재충전을 하는 시간이다. 매년 2월에 개최하고 있다. 2003년부터 시작돼 올해가 15번째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Acts29 비전 컨퍼런스 개최

해외비전교회 목회자, 협력위원 50여 명 참석

해외비전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2017 Acts29 비전 컨퍼런스'가 지난 3일 남한산성 목상의집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미주, 일본, 중국, 오세아니아, 아부다비, 베트남 등 30개 해외비전교회를 섬기고 있는 전임 목회자, 비전교회 협력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비전 컨퍼런스에서는 민속놀이를 통한 친교활동, 해외비전교회 전체 모임, 권역

별 모임, CGNTV 다류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관람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박신웅 목사(열바인 온누리교회)는 "온누리교회의 새로운 비전을 마음에 새기고 힘과 회복을 경험한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5일) 주일예배에서는 해외비전교회 목회자들이 설교한다. 서빙고 1부 이훈 목사, 2부 김철진 목사, 3부 문봉주 목사, 4부 유

현목 목사, 5부 김철희 목사, 6부 마크최 목사, 7부 김형철 목사, 일본어예배 니시야마 신이치 목사, 영어예배 전현규 목사, SNS 정장철 목사, 양재 1부 이정엽 목사, 2부 강부호 목사(북경), 3부 권혁빈 목사, 4부 박만규 목사, 5부 김대진 목사, 6부 박신웅 목사, 7부 최영민 목사, J4U 하카마다 미키 목사, 부천 서현 목사, 수원 금경연 목사, 대전 이한규 목사, 남양주 박시형 목사, 평택 이성권 목사, 인천 박재영 목사, 강동 강은수 목사, 양지 김태완 목사가 설교한다.

서빙고 목회행정실 내부 보수 공사

서빙고 목회행정실 내부공사에 들어간다. 낙후된 바닥과 천정 등을 보수하는 공사를 2월 5일 오후부터 2월 13일까지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사이닝글로리 유리방에서 목회행정실 임시 사무실을 운영한다.

아이스쿨 노트북 대여는 안내실에서 하면 된다.

신년기획

돌이킨 사람들 살아난 사람들

돌이키면 살아나라

뱃속까지 독실한 힌두교 신자, 예수를 만나다

남양주 온누리교회 초례사친 성도

남양주 온누리교회 초례사친 성도는 7살 때부터 힌두교 제사장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았을 정도로 독실한 힌두교 신자였다. 그런 그가 한국에 와서 기독교인 김옥희 성도와 사랑에 빠졌다. 사랑은 국경도 종교도 초월했다. 그런데 그녀와 결혼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종교적 갈등이 극심했다. 가족들의 반대도 이어졌다. 그래도 사랑의 힘은 위대했다. 종교적 갈등도 가족들의 반대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력했다. 그 사랑의 원천이 예수라는 것도 알게 됐다. 초례사친 성도는 무언가에 홀리듯 참석한 수련회에서 예수를 만났다. 힌두교 제사장 교육까지 받은 그가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지금 그는 성경 읽고 기도 하느라 시간가는 줄 모를 정도로 성장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고향에 복음을 전하고, 한국에 와 있는 인도인 이주민들을 섬기고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초례사친 성도의 고향은 인도다. 우상의 나라라고 불릴 만큼 신이 많다. 그의 가문은 유서 깊은 힌두교 집안이다. 할아버지는 힌두사원의 제사장이었다. 그는 7살 때부터 차기 힌두교 제사장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았다. 인도의 계급제도의 최상위층인 브라만에다가 할아버지는 힌두교 제사장, 아버지는 잘나가는 사업가였다. 전혀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다. 그가 15살 때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 힌두교 제사장이 되지는 않았지만 힌두교에 대한 신실함은 나날이 커져만갔다. 한국 생활은 2003년부터 시작했다.

“미국과 한국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웬지 모르게 한국이 좋더라고요. 음식과 한국 기업문화가 낯설기는 했지만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고급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외국인이라고 무시하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미아리에 힌두교 사원이 있어서 종교 생활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었고요.”

초례사친 성도는 한국에서도 독실한 힌두교 신자였다. 집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매주 토요일에는 금식을 했다.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는 모든 것이 새로운 한국 생활이 정말 재미있었다. 특히 한국의 밤문화는 정말 최고라고 생각했다.

“인도에서도 저녁에 술을 마시는는 하지만 한국처럼 자유롭고 다양하지 않아요. 흥대, 이태원 가릴 것 없이 다니면서 정말 미친 듯이 놀았어요.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거의 술에 취해 있었어요.”

한국 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동료의 소개로 운명적인 그녀를 만났다. 김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만난 초례사친 성도 가족.

옥희 성도가 그 주인공이다.

국경도 종교도 초월한 결혼 그리고 고난

그들의 사랑은 국경도 종교도 초월했다. 서로의 종교를 배려하는 것이 그들의 사랑을 더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이제 결혼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두 집안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다.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희 집에서는 외국인 며느리가 들어오면 집안 망한다고 했고, 장인 장모님도 힌두교인 사위를 좋아하지 않으셨죠. 한국 가족들을 모시고 인도에서 힌두교 전통 결혼식을 올렸는데 그날 장모님이 얼마나 평평 우셨는지 몰라요”

결혼 한 후에도 서로의 종교를 배려했다. 김옥희 성도는 남편이 힌두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고, 초례사친 성도는 아내와 함께 교회에 출석했다. 첫째 아이가 생기면서 변화가 시작됐다. 결혼 전 초례사친 성도는 하루에 백만 원 정도는 우습게 벌었다. 그런 그가 안 좋은 일까지 강요하는 회사를 그만두면서 수입이 단 한 푼도 없었다.

“아이가 생기니까 안 좋게 번 돈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었어요. 비자문제로 회사와 갈등도 있었고요. 회사를 그만두고 매일 종로에 갔는데 일 년 이상 되는 시간동안 저에게 주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가장으로서 정말 힘들

었어요.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가족들과 함께 인도로 갔지만, 3개월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다.

“아내나 저나 서로 우상을 섬기는 배우자를 만나서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종교문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것을 느꼈죠. 그때부터 종교적인 갈등이 시작됐어요. 아내는 교회에 더 열심히 나가기 시작했어요. 첫째 주회가 유아세례를 받는 문제로 심각하게 다퉈요”

남편의 반대에도 아내는 유아세례를 받기로 결심했다. 어렵게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그 소식을 전했다. 그런데 남편의 대답이 의외였다. 세례를 잘 받고 오라고 격려를 해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련회에 함께 가자는 순장의 제안도 흔쾌히 수락했다.

“지금도 제가 무슨 정신으로 주회의 유아세례를 허락하고, 수련회에 갔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아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사랑을 만나다

수련회에 참석한 초례사친 성도는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제까지 예수는 바보라고 생각했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저를 깨트렸어요. 본격

도 없는 신이 저를 사랑하고, 저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거예요. 힌두교에 그 많은 신 중에 인간의 죄 때문에 죽은 신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예수의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릴 때 힌두교 제사장 교육을 받은 것도 이때를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를 알기 위해서는 가짜를 잘 알아야 하니까요.”

수련회가 끝난 날 친구들을 만났다.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던 술과 담배가 전혀 끌리지 않았다.

“술자리에 앉아있었는데 그냥 허무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술과 담배 대신 말씀에 푹 빠져 살았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에 대해 알면 알수록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새벽예배, 수요일예배, 금요일예배까지 빠지지 않고 드렸어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딱딱하던 삶이 나아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영적인 싸움이 더욱 거세졌다.

“저를 커피 잔에 비유하면 잔에 커피 몇 방울 남아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 비우고 새 것을 채우셨어요. 남아있던 몇 방울의 커피를 비우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통장에는 돈 한 푼 없고, 꿈에 본적도 없는 조상들이 나타나 배교를 하면 어떡하냐고 꾸짖기도 했어요”

이들 부부는 힘들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을 붙잡았다. 축의금할 돈조차 없을 정도로 찼지만 행복했다. 놀라운 축복 속에서 살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힘들었던 경제사정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다. 둘째 제이도 낳았다. 무엇보다 기쁜 일은 인도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면서 제가 가족들을 책임지게 됐어요. 가족 안에서 저의 영향력이 높아졌죠. 가족들에게 씬 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집안에 뿌리 깊게 박혀 있던 힌두교 전통들도 하나씩 없어지고 있고요. 지금은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초례사친 성도는 인도 출장이 많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남을 예비한 선교사들을 돕는 일도 큰 기쁨 중 하나다.

“한 선교사님과 동행한 적이 있어요. 카세트 테이프를 들고 다니시며 힘들게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안 좋아 사장님과 상의해서 노트북을 선물해 드렸어요. 그 선교사님이 울먹이시며 노트북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너무 기뻐요”

초례사친 성도는 남양주 온누리교회 이주민 예배도 섬기고 있다. 인도에서 온 이주민들과 삶을 맞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인도 복음화에 힘을 제2, 제3의 초례사친 성도를 기다리면서 말이다.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심을 얻기까지 싸우라

신명기 3:12~20

“마음과 영혼의 심,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안식을 향하여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로서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침표가 없는 노래가 노래일수 없듯이 심 없는 인생은 인생일 수 없습니다. 지친 하루를 쉬는 심도 필요하고, 긴 인생에서 일정기간 쉬어야 하는 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육체가 편하게 쉬어도 마음의 심, 영혼의 심, 양심의 심, 관계의 심이 없으면 진정한 심이 될 수 없습니다. 심은 삶의 목표입니다. 살기 위해서 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쉬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심이 삶의 목표인 것은 우리가 창조된 목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고백론>에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오 주님 당신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우리가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우리의 영혼에는 심이 없나이다.”

어거스틴이 고백한 심은 단순한 육체적 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심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 어거스틴이 갈망한 심이요, 우리 삶의 목표가 되는 심입니다.

성경은 심을 가리켜 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유랑한 뼈아픈 실패를 회고했습니다. 후대들은 이러한 실패들을 반복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모세가 경험한 것은 가나안 정복 이전에 요단 동편정복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모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광야를 유랑하던 시절과 요단 동편 지역 점령까지만 남아 있습니다. 모세는 유랑 시절과 요단 동편을 정복했던 시기를 회고하면서 후대들은 조상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안식을 얻는 여정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유랑했던 이유는 안식을 얻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죄를 저지르고 시체가 돼 광야에 쓰러진 사람들에게 아닙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하셨습니까? 불순종한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입니까? 이로써 우리는 그들이 불신앙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남아 있을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 혹 누

구라도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합시다”(히 3:17~4:1).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을 ‘안식을 얻는 여정’이라고 해석합니다. 불신앙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에 실패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시편에서 그 시대 사람들은 안식을 얻는 일에 실패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여 년 동안 유랑했던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처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봐 경고했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를 노여워하며 말했다. ‘그들은 마음이 비뚤어진 백성들이어서 내 길을 모른다.’ 그래서 내가 진노하며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맹세했던 것이다”(시 95:10~11).

다윗 또한 조상들의 실패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을 안식을 얻는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연히 찾게 된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지정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애굽에 내려가 4대 동안 자손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 시키셨고, 그 땅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정복해야만 하는가?

그 땅은 약속으로 주신 땅이지만 싸워서 정복해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선물로 주어진 땅이라면 편하게 얻도록 해야지 왜 굳이 싸워 정복해야 하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싸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안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소중한 선물일수록 누리고 지키는데 조건이 필요합니다. 소중한 선물일수록 조건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고 하면서 정복하라고 하신 것이 모순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앞서 싸워주시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온전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순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원주민들을 진멸하는 부분에서 많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원주민들을 멸하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사회·윤리적인 문제에서 보면 많은 질문들이 생깁니다. 그 질문들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원주민들이 있는 지역을

정복하는 것은 잘못된 침략의 역사 아닌가?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심판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택하신 민족에게 어느 영토를 주실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떤 영토든지 마음대로 침범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지역만 침략할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2장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땅 이외에는 자극해서 싸우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에돔, 암몬, 모압 자손들의 땅을 지날 때는 결코 싸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모압 사람들을 건드리지 말고 그들을 자극해 싸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들의 땅은 내가 너 히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아르를 롯 자손들에게 주어 갖게 했기 때문이다’”(신 2:9).

에서와 그 후손들 에돔, 모압, 암몬 족속들의 땅에서는 절대로 싸워서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단강 건너 가나안 지역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지역이든 침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만 정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왜 원주민들을 무참히 진멸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진멸하시는 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부터 그들이 왜 애굽에 가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 땅에 가서 번성해야 하고, 둘째,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의 죄가 아직 가득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기간이고, 은혜로 허용하시는 기간이었습니다. 심판의 때가 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가나안 민족에 대한 심판을 저울질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민족보다 좋아해서 땅을 주시겠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악에 이른 가나안 민족에 대해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는 통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의 여정에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셨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고 성벽을 정복할 때 라함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남겨두지 않고 진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시는 자들은 기꺼이 구원하셨습니다.

다.

셋째, 정복의 기록이 역사의 일반적인 모범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전쟁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더디 하시는 분입니다. 정복의 역사는 아주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속의 역사에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약속의 땅을 얻는 과정을 안식을 얻는 전쟁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심, 천지창조의 완성이자 목표

약속의 땅은 ‘제2의 에덴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표현할 때 약속의 땅 혹은 여러 땅이라고 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표현이 무엇입니까. 젓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 땅에 젓과 꿀이 흐릅니까. 젓과 꿀은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실제 가보면 광야가 많습니다. 평야는 우리나라보다 못합니다. ‘무엇을 봐서 젓과 꿀이 흐른다는 것일까.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젓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그 땅에서 이뤄지는 일을 통해서 에덴동산이 회복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덴동산의 풍요와 안식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제2의 에덴동산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표현 방식입니다. 에덴동산에서 일어났던 반역과 타락으로 잃어버린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동산에서 백성들이 안식을 누리게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가나안은 안식을 다시 회복시키는 땅입니다. 안식은 천지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창 2:2).

‘쉬셨다’는 것은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피곤하셔서 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심은 무엇일까요. 천지창조의 완성이고, 목표입니다. 왜 6일 동안의 창조가 있을까요. 왜 우주만물이 존재할까요.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심을 모든 피조물과 함께 누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유대인 신학자 아브라함 허셸은 안식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13면에 계속>**

신년기획

온누리교회와 협력하는 13개 유관기관이 있다. 본지는 새해를 맞아 13개 유관기관 기관장들을 만나 올해 사역계획과 포부, 기도제목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온누리 영성과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서다. 이번 주에 만난 유관기관장은 Acts29 비전빌리지 황중연 목사, 두란노해외선교회(TIM) 도육환 목사, CGNTV 이용경 장로, 두란노서원 박태성 장로다.

/ 정현주, 김현준, 이소정 기자

13개 유관기관 기관장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알리고,

온누리교회 선교사 훈련장 'Acts29 비전빌리지'



황중연 목사
(Acts29 비전빌리지 원장)

Acts29 비전빌리지는 선교사 훈련 및 중보기도를 담당하는 선교기관이다. 지난 22년 동안 단기 선교사 686명, 장기 선교사 561명, 안식년 선교사 재교육 178명 등 총 1,425명의 선교사들이 이곳에서 훈련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와 예배, 선교영성을 키우는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명실상부 온누리교회 선교 허브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감당하고 있다. 다음은 Acts29 비전빌리지 원장 황중연 목사와의 일문일답.

Acts29 비전빌리지를 소개해 주십시오.

“1996년 지금의 자리에서 개원한 ‘이천만훈련원’이 Acts29 비전빌리지의 시작입니다. 이천만훈련원이 2001년 ‘온누리세계선교센터’로 개명하고 온누리교회 공식 선교사 훈련센터가 되었고, 2010년 ‘Acts29 비전빌리지’라는 이름으로 거듭나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Acts29 비전빌리지는 선교사 훈련, 하용조 목사 기념관, 선교사케어센터, 영성 훈련장으로 한국 선교와 세계 선교의 플랫폼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교사 훈련에는 단기 선교사를 위한 TP(Turning Point), 장기 선교사를 위한 OSOM(Onnuri School Of Mission), 안식년을 맞아 본국에 들어오는 선교사를 재교육하는 H2H(Home to Home)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선교사들 스스로 기술(이론), 인격, 관계, 신앙을 점검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용조 목사 기념관을 통한 영성 훈련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선교에 목숨을 걸었던 하용조 목사의 영성을 듣고 볼 수 있는 하용조 목사 기념관, 일제 강점기와 6.25전쟁 중에 믿을

을 지키려다 순교한 이들의 영성이 담겨 있는 순교자 기념관 등을 둘러보면서 선교 영성이 무엇인지 배우고 개발할 수 있습니다.

열방을 위한 예배와 중보기도도 합니다. 선교 현장은 나날이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다민족주의, 종교·경제적인 이유로 더 이상 선교사를 원하지 않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선교사들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중보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올해 중점 사역과 기도제목이 무엇입니까.

“세계적인 선교의 흐름과 선교 현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Acts29 비전빌리지는 이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맞춤선교훈련을 실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사 선교사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전통적인 교회개혁에서 현지 상황에 따른 맞춤 사역으로, 한국인 중심의 선교사 훈련에서 이주민이나 현지 지도자 등 다문화권 선교 헌신자 훈련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필요에 따라 훈련을 시켜서 선교사를 파송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선교사들의 연장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사

역 중인 선교사를 중간에 불러들여 지친 몸과 마음, 영혼을 쉬게 하고 회복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교는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오래, 더 멀리 가기 위해 잠깐 멈추고, 숨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지나온 시간을 정리하고 전진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채워줘야 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Acts29 비전빌리지에 ‘선교사케어센터’가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주 시간을 내서 Acts29 비전빌리지를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삶도 돌아보고, 영성도 업그레이드하고, 더불어 열방과 선교사들을 위해 중보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을 위해 아베스처럼 기도하고, 교회와 다른 사람을 위해 모세처럼 중보하기를 소원합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처럼 멋진 성도는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기쁘게,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선교에 동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란노해외선교회(이하 TIM)는 하용조 목사의 선교 정신에 의해 설립된 초교파 복음주의 선교단체다. 1992년 5가정을 선교사로 허입하여 파송한 이래 현재까지 약 1천여 명의 장단기 선교사가 TIM을 통해 열방을 섬겼다. 현재 50여 나라에 460명의 선교사가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다. TIM은 영혼구원, 교회개혁, 제자양육을 핵심사역으로 삼고, 지난 25년 동안 온누리교회 선교의 주력부대로서 최전방 선교를 담당하고 있다. 다음은 TIM 도육환 목사와의 일문일답.

TIM을 소개해 주십시오.

“올해는 TIM이 설립된 지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TIM은 온누리교회의 최전방 선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영혼구원, 교회개혁, 제자양육을 핵심 3대 사역으로 삼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전도와 교회개혁 뿐만 아니라 현장의 필요에 따라 금융사역이나 비즈니스, NGO 같은 다양한 접촉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의 궁극적 목표는 언제나 ‘영혼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우리 선교사역의 중심입니다. 영혼구원은 곧 교회개혁(CPM)으로 이어집니다. 온누리교회가 입양한 15개 미전도종족과 이슬람권, 공공산권 등 미복음화 된 지역을 우선적 사역지로 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제자양육과 리더십 훈련입니다. 이를 통해 자국과 자민족을 복음화 시켜 나갈 수 있는 건강하고 재생산 가능한 현지 교회들을 일으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영혼구원이 교회개혁으로, 교회개혁이 제자양육과 리더십 양육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올해 중점 사역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전략적 사역(ST)이고, 둘째는 팀(Team) 사역입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위대한 선교부흥의 시기를 보내면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열방에 파송했지만 선교의 질적 성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점검하지 못한 것도 사실

입니다. 건강한 선교는 팀 단위의 상호책임성을 통해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선교사 개인 단위(Unit)로 진행하던 현장을 두 가정 이상이 공동의 비전과 목표로 팀(Team)을 이루어 사역할 수 있도록 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 선교의 풀뿌리 단위를 ST(Strategic Team) 곧 전략적 팀사역이라 부릅니다. 전략적 팀 단위의 현장조직이 강화될 때 중장기적으로 사역이 지속 가능하고, 현장 중심의 창의적 전략 개발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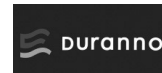
상반기에는 각 지역 선교사님들의 이야기와 전략들을 모아 <TIM 선교행진>을 발간할 예정이고, 8월 중에는 ‘TIM 미션캠프’를, 9월 중에는 ‘TIM 25주년 선교대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TIM 선교행진>은 지난 25년 동안 선교현장에서 일어난 일들뿐만 아니라 향후 세워나가야 할 각 지역 선교전략들을 담을 예정입니다. TIM 미션캠프는 한국 교회 선교자원을 동원하고, 영성의 회복을 추구하는 부흥집

회가 될 것이며, 25주년 선교대회는 약 100여 명의 본부 및 각 지역 선교리더(SC)들과 함께 새로운 선교 25년을 기획하는 선교 이노베이션(혁신) 회의가 될 것입니다.”



도육환 목사
(두란노해외선교회 본부장)

온누리 최전방 선교 이끄는 ‘두란노해외선교회(TIM)’



전하고, 가르치고, 보여주고

공유, 공감, 공생 'CGNTV'



이용경 장로
(CGNTV 대표)

CGNTV는 1년 365일 24시간 복음의 메시지가 끊이지 않는 방송이다. 크리스천들에게 언제 어디서든 영적 양식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서 CGNTV를 시청할 수 있다. 현재까지 선교사들에게 설치해준 안테나가 1만대를 넘어서었다. 3개의 해외지사(미국, 일본, 인도네시아)와 4개의 제작센터(대만, 태국, 아랍, 홍콩)를 두고 현지에서 꼭 필요한 콘텐츠 제작과 현지어 방송을 하고 있다. 다음은 CGNTV 이용경 대표와의 일문일답.

CGNTV가 궁금합니다.

“2005년 개국한 CGNTV는 전 세계 170여 개국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통로’입니다. 글로벌(Global) 선교교육방송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상업화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원칙에 따라 순수 선교교육방송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를 공고히 하고자 상업적 광고 없이 시청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CGNTV는 국내외 말씀, 예배 라이브 교육 콘텐츠뿐 아니라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을 매년 600여 편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IPTV 기독교 채널 시청률 1위를 달성했습니다(전체 150개 채널 중 최고 24위 기록). 또한 SNS 전용 채널인 ‘KNOCK’을 개설해 누적 조회수 1,800만회를 기록했습니다. 웹드라마 ‘교회오빠의 연애QT’는 작년 8월 K웹페스트에서 ‘베스트 브랜드 시리즈 상’을 수상했으며 미니휴먼다큐 시리즈는 지난 12월 한국기독교언론대상 ‘기독교문화부문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앞으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전

방위적 미디어 선교 매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것입니다. ‘공유, 공감, 공생’이라는 핵심 가치를 이루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중점 사역이 무엇입니까.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 CGNTV는 온누리교회와 더불어 ‘돌이키면 살아나리라’는 표어를 내걸고 종교개혁의 정신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더 가까이’라는 영적 목표를 가지고 한 영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CGNTV는 이를 위하여 성도들의 신앙 회복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해서 한국 교회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온누리교회에서 상영했던 다큐영화 ‘서서편, 천천히 평온하게’의 영화관 개봉과 순회 상영을 통해 한국 교회 성도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방송 최초로 TV 드라마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따뜻했던 그때 그 시절 교회의 모습을 담아 중장년층의 소중한 추억을 되살려 보고자 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소망을 담은 다큐멘터리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새로운 강연

프로그램 ‘나침반 C’도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신규 프로그램 ‘유턴’도 오는 6월에 방송됩니다. SNS에서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던 모바일 맞춤형영상 ‘KNOCK’도 미니시트콤, 미니휴먼다큐 등 다양한 형태의 영상을 제작해서 다음 세대의 마음을 두드릴 것입니다.”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CGNTV가 지난 11년 동안 불가능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격려 덕분입니다. 시청자들이 없었다면 CGNTV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헌신적인 후원회와 CGNTV를 위한 중보기도모임에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CGNTV는 후원자 5만 명을 목표로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투명한 경영을 약속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한 영혼을 위해 ‘더 멀리, 더 가까이’ 다가가는 CGNTV가 되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살렘!”

두란노서원은 문서사역을 통하여 목회자와 평신도를 훈련시키고, 세계선교와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가정과 상담사역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더 널리, 더 풍성하게 공급하고 있다. ‘활자로 만나는 영원한 생명’이 바로 두란노서원이다. 두란노서원에 가면 언제나 그윽한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 다음은 두란노서원 경영이사 박태성 장로와의 일문일답.

두란노서원을 소개해 주십시오.

“두란노서원은 크게 4가지 사역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돕고, 평신도를 훈련시키는 사역, 세계선교와 문서선교, 예수님의 문화를 심는 사역, 가정과 상담사역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공급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연령대별 성경공부 교재 시리즈 발간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생전에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교재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말, 예수로 읽는 연대기 성경공부 ‘The Gospel Project’ 제1권 <위대한 시

작> 청장년, 중고등부, 초등학교 고학년과 저학년용 지침서와 인도자용(교사용) 교재를 각각 출간했습니다. 미국의 ‘LifeWay’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앞으로 3년에 걸쳐 총 12권의 구속사적인 연대기 성경공부 교재를 연차적으로 출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서빙고와 양재 두란노서점이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내부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책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두란노서원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올해 주요 사역 계획이 무엇입니까.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기독교 관련 출판사뿐 아니라 교계에서도 올해를 기점으로 복음의 본질을 돌아볼 것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에 발맞춰 성도들과 교회가 한국사회에 빛과 소금으로써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두란노서원에서 발간하고 있는 큐티(QT)지 <

활자로 만나는 영원한 생명 ‘두란노서원’

생명의 삶>이 올해 창간 30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삶>은 두란노서원의 중점사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을 공급하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호부터 편집과 디자인을 새롭게 해서 앞으로 30년을 준비하는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성도님들께 더욱 풍성한 내용을 전하고, 두란노서원만이 제공할 수 있는 영성이 있는 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한국어 외에도 8개 언어로 출간되고 있는 <생명의 삶>도 지경을 더욱 넓혀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해 창간한 ‘The Gospel Project’ 시리즈 제1권에 이어 제2, 3, 4, 5권을 출간하려고 합니다. 연령대별 성경공부 교재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유아·유치부’용 책도 출간할 예정입니다. 온 가족이 같은 내용의 성경공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더 널리 보급하는 일에도 앞장 설 것입니다. 영어권 성도들을 위한 <NIV-우리말성경>도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기도제목을 나눠주십시오.

“이 시대에는 무신론과 이단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두란노서원이 바른 복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문서선교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박태성 장로
(두란노서원 경영이사)

인천, 밥 피츠 목사 초청 찬양집회

첫사랑을 다시 만나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 눈물과 간증 그리고 회복



밥 피츠 목사.



지난달 22일 인천 온누리교회에서 아주 특별한 집회가 열렸다. 세계적인 찬양인도자 밥 피츠 목사 초청 찬양집회를 개최한 것. 밥 피츠 목사와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했다. 이 특별한 집회에는 6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의 표정에 기쁨이 가득했다. 그도 그럴 것이 구원, 능력, 안식 등 정말 다양한 주제의 찬양이 흘러 넘쳤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당시에 사무치도록 좋아했던 찬양을 듣고 부르면서 잊고 있었던 첫사랑을 다시 만났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매서운 추위에 옷깃을 여민 성도들이 어디론가 바쁜 발걸음을 재촉했다. 칼바람이 불고 몹시 추운 날씨인데도 웬일인지 성도들의 표정이 밝다. 흥분되고 설렘이 가득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다. 아마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찬양사역자 밥 피츠 목사 초청 찬양집회를 앞두고 있어서일 것이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날만을 기다려왔는지 모른다.

강상원 형제(브릿지)도 이번 찬양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서둘러 송도 컨벤시아에 와 있었다. 그는 이번 집회가 열리기만을 학수고대했다. 갓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사무치게 좋아했던 ‘예수로 나의 구주삼고(Blessed Assurance)’,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로마서 16:19(Romans 16:19)’ 같은 찬양을 밥 피츠 목사가 부르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날은 강상원 형제의 소망이 현실이 된 날이다. 그와 같은 소망이 이루어진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찬양사역자 밥 피츠 목사는 90년대부터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찬양을 많이 쓰고 불렀다. 그의 찬양은 누구나 부르기 쉽고, 편안하고, 부드럽다. 무엇보다 그의 찬양에는 하나님과 첫사랑에 빠진 우리들의 진솔한 고백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한국 교회 성도들은 밥 피츠 목사의 찬양을 듣고 부르며 신앙을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윗과 같이 춤추고, 기뻐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세대를 넘나들었다. 코흘리개 차세대부터 백발이 희끗한 장년까지 다양한 세대들이 참석했다. 나이, 성별, 직업, 직

분과 상관없이 밥 피츠 목사와 함께 찬양하며 울고, 웃고, 기뻐 뛰었다. 그야말로 천국잔치였다. 밥 피츠 목사가 등장하자마자 열기가 뜨거워졌다. 그가 단상에 오르자 성도들은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다. 성도들의 뜨거운 환영에 밥 피츠 목사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화답했다.

집회의 문이 열렸다. ‘예수로 나의 구주삼고(Blessed Assurance)’가 울려 퍼졌다. 비단 같이 부드러운 밥 피츠 목사의 목소리가 회중들의 마음을 순식간에 사로잡았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했다. 집회현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다음 찬양은 지난해 1월 발표한 ‘스스로 계신 주(I am that I am)’였다. 밥 피츠 목사가 한국어로 찬양을 인도했다. 안 그래도 뜨거운 집회열기가 더 뜨거워졌다. 후끈 달아올랐다. 회중들은 흥겨운 멜로디에 몸을 뒹굴며 두 손을 높이 들었다. 다윗과 같이 춤추고, 기뻐했다.

밥 피츠 목사가 “말씀대로 영원히 스스로 계신 주님께는 놀라운 힘이 있다”며 “그 이름을 붙들자!”고 소리치자 회중들이 “아멘”으로 화답했다.

이어지는 찬양은 ‘그 사랑 안에 거하리(Rest)’였다.

이 찬양은 1년에 200일 이상을 월드투어를 할 정도로 바쁜 일정을 보내던 밥 피츠 목사가 안식의 중요성을 깨닫고 만든 곡이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시고 오직 예수의 사랑 안에서 안식을 취한다.”

밥 피츠 목사의 이 고백은 가정, 일터, 사역에 지친 성도들을 위로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는 “심적으로 힘든 한 주를 보냈다면 주님 안에서 안식을 취하고 새 힘을 얻어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장 곳곳에서 뜨거운 기도와 눈물이 터져 나왔다.

집회 현장에는 뜨거운 눈물과 간증이 가득했다. 찬양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가 울려 퍼지는 순간 오현미 성도(인천 온누리교회)는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그때로 돌아갔다. 그녀는 “예수님과 첫사랑에 빠졌을 때 이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른다”고 했다.

이날 집회는 ‘로마서 16:19(Romans 16:19)’으로 피날레를 장식했다. 이 찬양은 모두를 청년 시절로 돌아가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이승배 장로(인천 온누리교회)는 “정말 순수하고 힘차게 찬양하던 청년 시절이 떠올라 가슴이 벅찼다”면서 “그때 그 시절의 순수함을 회복하고 싶다”고 고백했다.

밥 피츠 목사가 소개하는 찬양

그 사랑 안에 거하리(Rest)

2012 ‘Called to Worship’ 수록

나는 당신의 사랑 안에서 거합니다(I rest in Your love)
내 힘은 오직 당신에게서 옵니다(My strength comes from You alone)
당신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Your grace in more than enough)
당신은 목마른 제 영혼의 분수입니다(You are the fountain for my thirsty soul)
당신은 내가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You are everything that I need)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My all sufficient King)
내가 안식합니다(I rest)
내가 안식합니다(I rest)
당신의 사랑 안에서(In your love)

* 밥 피츠 목사의 찬양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bobfitts.com/>)와 유튜브(<https://www.youtube.com/>)에서 들을 수 있다.

이 찬양은 내가 몹시 힘들고 지쳐있을 때 만 들었다. 이 찬양을 만들 때 나는 “그러므로 그 분이 안식에 들어가라는 약속이 남아 있을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 혹 누구라도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합니다”(히브리서 4:1)라는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다. 오직 예수의 사랑 안에서 안식할 수 있다. 안식은 아버지의 축복이다. 안식은 마음이 쉬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은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가정, 일터, 사역지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다.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비결이 있다. 어떨 때 주님

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줄 아는가. 바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있을 때다. 안식하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셨다. 주님이 우리 힘의 원천이고, 근원이다.

지난주가 정말 힘든 한 주였을 수 있다. 정치, 국가, 가정, 일터, 사역 때문에 지쳤을 수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마태복음 11:28).

주님 안에서 안식하시기를 바란다. 어떤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다. 두려움, 걱정, 깨어짐,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라. 주님께서 변화시켜주실 것이다.

“나는 행복한 선교사입니다”

박일구 선교사의 ‘누구나 365일 선교하는 꿈’



365일 온누리교회 성도들 덕분에 행복하다는 박일구 선교사.

2017년 선교헌금 작성행사에 성도 29,473명이 참여했다. 선교헌금 봉헌은 물론 재능기부 후원도 이어졌다.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120억이 넘는 금액을 선교헌금으로 작성했다. 이 뜨거운 선교열정이 단일 교회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1,883명(누적)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었던 마중물이다. 그 열정에 힘입어 지금 이 시간에도 75개국에서 896명의 선교사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 오늘 만난 박일구 선교사도 그중 한 명이다. 그는 온누리교회 성도들 덕분에 너무나 행복한 선교사라고 날마다 노래하고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박일구 선교사는 1989년 아프리카 감비아 단기선교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9개국에서 19년 동안 선교했다. 1997년에 정식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아 이스라엘 갈릴리에서 식당을 운영하기도 했다. 그 이후에는 스리랑카에서 온누리국제학교를 지었고, 모잠비크, 아이티, 몽골, 르완다 등 건축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 굶은 땀방울을 흘렸다. 지난해부터는 지진피해를 입은 네팔 고레다라 마을에서 NGO 더멋진세상과 함께 ‘더멋진마을 조성사업’을 실시했다. 1년 만에 가옥 69채, 교회, 초등학교, 마을 진입로, 상수도 공사를 마쳤다.

도저히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의 얼굴은 늘 웃고 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노래하는 것을 감출 수가 없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물었더니 숨 돌릴 여유도 없다. 박 선교사의 한마디 한마디에 감사, 감동, 사랑, 행복, 기쁨이 가득했다. 선교사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 했다. 모든 것이 매순간 함께하는 하나님과 기도해주고 후원해주는 온누리교회 성도들 덕분에이라고 했다.

“저는 정말 행복한 선교사입니다. 온누리교회는 매년 선교헌금을 작성하면서 새해를 시

작하잖아요. 이런 교회나 단체는 그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선교사인거죠. 든든하게 힘이 돼주는 성도님들이 있어서 가는 선교사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선교헌금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큰 힘이 된다고 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365일 선교사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각 공동체에서, 다락방에서, 순에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모든 예배 축도마다 선교사를 위한 기도가 빠지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매년 여름 성도들이 선교지를 찾아가 선교사들에게 정말 큰 힘을 주고 계십니다. 선교사들이 온누리교회 성도들 덕분에 이처럼 큰 영적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선교사를 돕고, 돌보고, 양육하는데 물심양면 힘쓰는 교회와 성도들 때문에 다치거나 죽는 것도 하나도 두렵지 않다고 했다. 그의 고백은 진심이었다. 그의 눈빛, 숨소리, 표정, 손짓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이나 선교사나 다치거나 아픈 것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라는 이유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봄을 받습니다. 혹여나 선교지에서 죽으면 ‘온누리동산’이라는 선교사들을 위한

안식처에 가면 되구요. 선교지에서 아프거나 죽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선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빛진 자가 빛을 갚는 마음으로

박일구 선교사는 평신도였다. 건설회사에서 전기파트 소장으로 일하다 온누리교회 건축에 참여하면서 온누리교회 성도가 됐다. 당시 하용조 목사의 말씀을 들으며 선교에 대한 꿈을 키워나갔다. 자신의 달란트인 건축기술을 살려 건축 선교사가 되고 싶었다.

“저는 원래 전기기사예요.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데 하나님이 크게 써 주셨죠.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학교, 보건소, 조산소, 교회를 지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예수 믿을 상상만 해도 행복해요. 저보고 설교를 하라고 하면 못해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건축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잘 할 수 있어요. 건축뿐만 아니에요. 교육, 예체능, 이·미용 등 선교지에서 달란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박 선교사는 더 많은 성도들이 달란트를 살려 선교에 헌신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물론 박 선교사처럼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을 꿈꾸는 성도들이 많다. 하지만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먹고 살아야 하고, 자녀교육에 대한 걱정도 크다. 박 선교사는 선교를 시작하면 본업을 내려놓거나 자녀교육이 어렵지 않을까 걱정하는 성도들에게 재능기부를 통한 선교를 제안했다.

“평생을 선교지에서 헌신하는 것만이 선교는 아니에요. 번역, 통역, 선교사 케어같이 재능기부로도 얼마든지 선교에 동참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도 말예요. 아웃리치나 단기선교는 본업을 내려놓지 않아도 되고, 자녀들도 한국

에서 생활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럴만한 재능이 있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헌신하면 됩니다.”

실제로 성도들의 재능기부가 선교사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네팔 고레다라 마을에서 실시한 더멋진마을 조성사업에서 재능기부로 헌신한 박현규 형제(요셉공동체)의 활약이 대단했다.

“처음에는 아내와 둘이서 산 중턱에 건물을 지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건축이란 행정을 동시에 하는 일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박현규 형제가 1년 동안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지원했어요. 건축을 전공했고, 영어를 잘하는 친구라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1년 동안 건축은 물론 행정업무를 도맡아 해주었어요.”

재능기부를 통한 단기선교는 장점이 많다. 우선 비자받기가 수월하다. 주로 여행 비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자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단기선교이기 때문에 본업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자녀교육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된다. 선교하는 동안 농업, 어업, 제조업, 교육, 언어, 예체능 등 자신이 가진 재능이 필요한 선교사를 찾아가 도우면 된다.

“선교지에는 성도님들의 재능이 꼭 필요합니다. 네팔 고레다라 마을에 종자개량을 해서 자두와 오렌지 같은 과수를 키울 계획이에요. 선교사가 재배법을 익혀 현지인들에게 가르칠 수도 있지만 평생 과수를 키운 성도님들이 가르친 것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정말 선교를 하고 싶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선교를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온누리교회에는 Why Mission?, 전문인 선교스쿨(OPMS), 이슬람선교학교, 한글선교학교, 북한선교학교 등 다양한 선교 관련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박 선교사는 구원받은 사람이 꼭 해야 하는 일이 선교라고 했다.

“지금까지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대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빛진 자가 빛을 갚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빛을 갚아야 합니다.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학교도 지어주고, 병원도 지어주고, 교회도 지어줬어요. 거기서 배우고, 치료받고,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다 그 빛을 갚아야 합니다. 앞으로 물질과 기도, 재능기부로 선교에 동참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주세요.”

재능기부에 관심 있는 성도는 아래의 QR코드를 통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선교헌금을 봉헌하려는 성도는 각 캠퍼스 본당 입구에 비치되어 있는 선교헌금 작성서를 이용하면 된다.

문의: 02-3215-3616



꼭 한번 가봐야 할 순례길 - 경상남도 창원

묵상하길, 헌신하길, 기억하길, 사랑하길

주기철목사기념관부터 손양원목사기념관까지



▲ 주기철목사기념관.
▶ 웅천교회.



묵상의 길

헌신하길



▲ 경남선교 120주년 기념관.
▶ 문창교회.

기억하길

사랑하길



▲ 손양원 목사 생가.

경남 창원시에 꼭 한번 가봐야 할 순례길이 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길인지 모른다. ‘항일독립운동가 주기철 목사 성지순례길’이라는 명칭으로 통용된다. 주기철 목사 성지순례길은 창원 진해구 ‘묵상의 길’, 마산합포구 ‘헌신하길’과 ‘기억하길’, 경남 함안군 ‘사랑하길’로 이어져 있다.

‘묵상하길’에는 주기철목사기념관과 웅천교회가 있다. 그곳에 가면 주기철 목사의 유년기와 그의 신앙을 깊이 묵상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 ‘경남선교 120주년 기념관’까지가 ‘헌신하길’이다. 여기에는 한국선교를 위하여 헌신했던 호주 선교사들의 묘원이 있다. 이곳에서 14.3km를 이동하면 주기철 목사가 시무했던 마산 문창교회가 나온다. 이곳이 ‘기억하길’이다.

기억하길에서부터 손양원 목사의 생가와 기념관까지를 ‘사랑하길’이라고 한다.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 삼고, 한센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은 손목사의 숨결을 다시 만날 수 있다. 공동체, 순모임, 가족들과 함께 거닐면서 역사도 공부하고, 신앙도 성장하는 최고의 순례길이다. 곧 봄이 오면 그곳에 가보자.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주기철 목사의 고향 ‘묵상의 길’

“오직 나에게는 일사각오(一死覺悟)가 있을 뿐입니다.”

주기철 목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다. 4km 정도 되는 묵상의 길은 주 목사의 신앙과 삶을 되새기고, 배우고, 사모하는 길이다. ‘주기철목사기념관’은 제1전시실 ‘면류관’과 제2전시실 ‘나라사랑’으로 구성되어 있다. 1층 면류관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오른쪽에 주 목사의 ‘일사각오’ 설교문이 있다. 이를 기점으로 왼쪽으로 돌면 그의 유년생활과 민족혼을 일깨운 학창시절, 독립운동 당시 현장 복원 모형 등을 볼 수 있다. 2층에 있는 제2전시실 나라사랑에는 주 목사의 항일투쟁과 순교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의 일사각오 신앙을 깊이 묵상할 수 있다. 주 목사의 기도처였던 무학산 십자바위 모형, 초량교회에서 시무할 때 사용했던 강대상 등도 복원되어 있다.

주기철목사기념관을 나와 도로를 건너면 웅천읍성(경남도 기념물 제15호)이 있다. 웅천읍성 북쪽 성벽을 따라 가다보면 주 목사가 다녔

던 개통학교(현재 웅천초등학교)가 나온다. 그곳에서 남서쪽으로 가면 주 목사가 처음 다녔던 옛 웅천교회 건물이 그대로 서 있다. 지금은 실로암교회가 자리하고 있다. 웅천교회는 약 2km 떨어진 곳으로 이전했다. 웅천교회 바로 앞에 소양 주기철 목사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교회 1층에는 주기철 목사의 생애를 7부로 나누어 전시해 놨다.

한 알의 밀알이 된 ‘헌신하길’

웅천교회에서 마산합포구 경남선교 120주년 기념관까지가 ‘헌신하길’이다. 차를 타고 33km를 이동해야 한다. 약 50분이 소요된다. 4개의 순례길 중에서 가장 길지만 전혀 지루하지 않다. 특히 봄철에 가면 진해구 경화역을 지나 날 때 줄지어있는 벚나무의 자태가 환상적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경화역을 지나 양곡IC를 통과하면 나오는 마창대교의 경치도 볼만하다. 웅장한 마창대교 양 옆으로 탁트인 마산만(馬山灣)은 그야말로 절경 중 절경이다.

마창대교를 지나 창원공원묘원 입구에서 15분 더 들어가면 경남선교 120주년 기념관이 있다. 경상남도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했던 126명

의 호주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만날 수 있다. 19세기 말 호주 장로교가 경상남도 일대를 분담해서 복음을 전파했다. 이곳에 전시된 호주인 선교사들의 유품, 미망인과 고아를 돕기 위해 만든 수예품 등이 그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역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기념관 뒤편에는 한국에서 순직한 호주 선교사 8명의 묘가 있다. 본국을 뒤로하고 타국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된 그들의 묘 앞에 서면 저절로 숙연해진다.

‘기억하길’ 그리고 ‘사랑하길’

경남선교 120주년 기념관에서 북동쪽으로 차를 타고 30분 이동하면 마산 문창교회가 나온다. 이곳이 ‘기억하길’이다. 마산 문창교회는 주기철 목사와 인연이 깊다. 주기철 목사가 청년일 때 부흥사였던 김익두 목사가 인도하는 부흥회에 참석했다. 바로 그날 성령의 감화를 받고 주 목사는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그 부흥회가 열린 곳이 바로 마산 문창교회다. 또한 주 목사는 1931년부터 5년 동안 마산 문창교회에서 8대 담임목사로 시무했다. 이때부터 주 목사는 삼엄한 일본 경찰의 감시 아래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올곧은 신앙으로 신사참배 반대 운동에도 앞장섰다. 마산 문창교회 1층 자료실에는 그가 이곳에서 시무할 당시 찍었던 사진과 그가 기록한 당회록 등이 전시되어 있다.

‘기억하길’에서 꼭 가봐야 할 곳이 또 있다. 주 목사가 자주 올라 기도했던 무학산이다. 무학산 중턱에 있는 십자바위는 주 목사의 기도처로 유명한 곳이다. 마산 문창교회에서 차를 타고 10분 거리에 있다. 무학로에서 1시간 정도 오르면 십자바위를 찾을 수 있다. 이곳에서 매일 쓰러져가는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주기철 목사를 다시 만날 수 있다.

마산 문창교회에서 함안군 칠원읍 손양원 목사 생가와 기념관까지 19.5km 구간이 ‘사랑하길’이다. 손 목사는 자신의 첫째아들과 둘째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양아들로 삼은 일화로

유명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준 손양원 목사의 고향이 바로 함안군이다. 손양원목사기념관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손양원 목사 생가를 만날 수 있다. 어린아이 손양원 목사의 동상은 그의 유년시절을 잘 보여준다.

기념관 관람은 2층 생가 이야기부터 시작한다. 손 목사의 삶에 영향을 끼친 인물들이 소개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익숙한 사람이 있다. 바로 주기철 목사다. 두 목사는 경남성경학교에서 처음 만났다. 주 목사의 신앙과 로마서 강해는 손 목사가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손 목사가 옥중에서 주 목사의 순교 소식을 듣고 30일 동안 잘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애곡하였다고 한다. 두 목사의 사이가 얼마나 돈독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손양원목사기념관 2층 생가 이야기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고난의 길’이 나온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손 목사의 순종을 묵념할 수 있다. 이어서 ‘나라사랑’이 나온다. 손 목사가 신사참배 강요에 맞서 끝까지 투쟁했음을 잘 볼 수 있는 곳이다. 그 다음이 ‘인간사랑’이다. 손 목사는 ‘한센인의 친구’로 통한다. 편견과 차별이 난무했던 당시 한센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었기 때문이다.

서두르면 4가지 순례길을 하루 만에 다 볼 수 있다. 그러나 70.8km 되는 긴 여정인 만큼 제대로 보려면 1박 2일 일정으로 보는 것을 추천한다. 각 순례길에 있는 기념관과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미리 연락을 하면 해설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주기철목사기념관
문의: 055-545-0330

웅천교회
문의: 055-546-5891

경남선교 120주년 기념관
문의: 055-247-7993

마산문창교회
문의: 055-245-4801

손양원 목사 생가 및 기념관
문의: 055-587-7770

언제 들어도 은혜로운 찬양

신실한 하나님 나의 구원자
경배하리 평강의 왕
나의 하나님 찬양하리 영원히
눈보다 더 희게 나의 죄 씻으셨네

찬양 '신실한 하나님'은 경배와 찬양 침묵 기도 4집에 수록된 곡이다. '하나님 어린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온맘 다해' 등 한국 교회의 90년대 예배의 영성을 이끌었던 주옥같은 이 찬양들은 영국의 예배 인도자 크리스 A. 보터 목사의 곡이다.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찬양은 짧고 단순하지만 영혼의 심연에 깊은 울림과 여운을 남기는 기쁨부음 있는 곡이다. 이런 특별함은 이 찬양의 고백 속에 담긴 예배자의 시선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예배자의 시선이 이 곡에 흔적처럼 묻어 있다. 이 찬양에는 예배자의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 그분만 계시 뿐이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어떤 일에 대한 칭송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 그분의 성품, 그 존재에 대한 깊은 경험과 목상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예배 안에서 자기중심적인 것들을 고백하고 논하고 싶어 한다. 나의 마음, 나의 아픔, 나의 의지, 나의 소망, 그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그분이 주실 은혜를 확인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예배가 깊어질수록 예

배자는 자기 자신을 의식할 수 없게 된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속에 잠길 때 예배자는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그 어떤 것도 영향력을 갖게 되거나 기억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 한 분으로 모든 것이 너무나 완전하고 충분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지성소의 영광을 경험한 예배자들에게 필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두려움의 소멸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얼굴 속에서 예배자는 평강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결코 녹

록하지 않음을 알게 된다. 우리가 꿈꿔왔던 대로, 소망했던 대로,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음을 알게 된다. 그 높은 장벽 앞에서 우리는 때로 좌절과 낙심의 쓴 잔을 마시게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에게 한 가

신실한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예배드린 사람들은 이 진리를 마주하게 된다. '신실한 하나님'이란 찬양은 바로 그 관계를 열어주는 곡이다. 비록 나의 필요로부터 시작된 그 어떤 고백이 섞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온전히 그분만으로 완전한 채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함이 아닌 그분 자신을 구하는 예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의 시선과 그로 인해 평강이 깊이 있게 부여진다.

연약한 환자는 의사의 얼굴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낸다. 폭풍을 만난 선박의 사람들은 선장의 얼굴 속에서 안전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 예배자는 하나님의 얼굴 속에서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

"여호와께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게 원하며 여호와께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민

6:24-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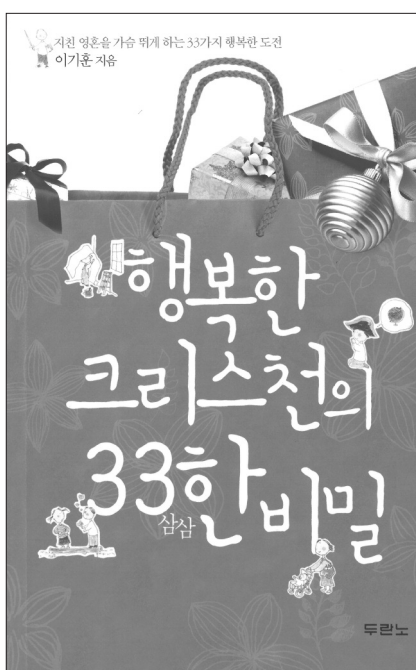
하나님의 얼굴은 언제나 은혜와 평강이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분의 은총을 누리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원한다.



원우경 목사
(SNS공동체)

두란노 신간

싱거운 것 같은데 맛있다!



《행복한 크리스천의 33한 비밀》
이기훈 저 | 두란노 | 11,000원

삼삼하다는 표현은 외모가 매력적이거나 사람에게 끌리는 데가 있을 때 혹은 음식이 약간 싱거우면서도 맛이 있을 때 쓴다. 이기훈 목사가 펴낸 《행복한 크리스천의 33한 비밀》이라는 책도 삼삼하다. 책 제목처럼 말이

다. 싱거운 것 같은데 은근히 맛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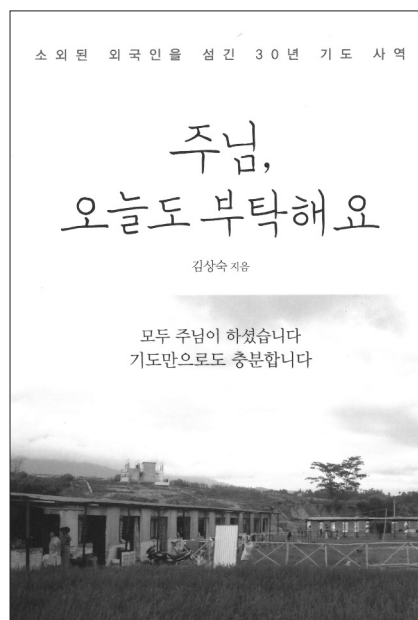
저자 이기훈 목사는 33가지 행복 매뉴얼을 제시하면서 행복한 크리스천이 되라고 권유하고 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라', '성령세례를 받아라', '큐티를 하라',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유서를 작성하라', '다윗처럼 시편을 써보라', '가족기념일에 의미 있는 일을 하라', '양부모가 되어 보라', '교회의 3D사역에서 봉사하라',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라' 등 33가지 방법을 권유하고 있다. 행복한 크리스천에게 꼭 필요한 영성, 일상, 여가, 삶을 제언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다. 명령형으로 권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번 해보면 좋을 거야" 또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식의 어중간하고 두루뭇술한 조언은 결코 행복한 신앙인의 비결이 될 수 없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행복한 크리스천의 삶이란 어떤 모습일까. 소소한, 싱거운 것 같지만 알차고 맛있는 음식 같은 신앙생활이아말로 행복한 삶 아닐까.

이 책에서 제시하는 33가지 지침들을 하나 하나 실행하다보면 행복한 크리스천으로서 삼삼하게 신앙생활을 영유할 수 있을 것이다. 행복을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삼삼한 행복을 전하는 맛있는 책이다.

주님께 부탁하고! 철석같이 믿고!



《주님, 오늘도 부탁해요》
김상숙 저 | 두란노 | 13,000원

여기 조지 물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계를 흔들어서 고아들을 먹일 수 있게 하신 사건을 동일하게 체험한 이가 있다. 바로 홀리네이션스 선교회의 김상숙 선교사다. 그녀가 소속된 홀리네이션스 선교회는 2000년 설립됐다. 소외된 외국인 노동자들을 섬기고 있는 단

체다. 소외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 치료해주고, 장학금을 지원해 신학 공부를 돕기도 하며, 잠잘 곳과 먹을 것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렇게 소외된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는 데만 매달 수천만 원의 재정이 들어간다. 지금까지 50억 원을 썼다. 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단 한 번도 부족함 없이 채워졌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이런 우문(愚問)에 저자는 "모두 주님이 하셨습니다. 기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라고 간증한다.

저자는 성경대로 기도했고, 기도한 후에는 이루어 주실 줄로 진짜 믿었다. 수많은 외국인들을 돌보면서 맞닥뜨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부탁했다. 그리고 이루어 주실 줄로 철석같이 믿었다.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도만으로는 삶의 작은 일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다고 느낀다. 기도가 멈춰 있고 허공에 맴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면 이 책을 읽어라. 기도가 응답받는 현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리자.

"주님, 오늘도 부탁드려요!"

Stop Malaria! 캠페인

NGO 더멋진세상, 아프리카에 모기장 보내자!

NGO 더멋진세상이 3월 31일까지 ‘Stop Malaria’ 캠페인을 벌인다. 모기장을 후원해서 말라리아로부터 생명을 보호하자는 운동이다. 개인이 1만5천원을 후원하면 말라리아를 예방할 수 있는 살충 모기장 1개를 아프리카 세네갈, 르완다 어린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살충 모기장을 이용하면 말라리아 발병률 50%, 아동 사망률 20%를 낮출 수 있다.

전 세계 인구 절반에 가까운 33억 명 이상이 말라리아 감염 지역에 살고 있다. 매년 5억 명 이상이 말라리아

에 감염되고 있다. 한 해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는 66만 명에 이르고, 그 중 91%가 아프리카에서 발생한다. 사망자의 86%는 5세 미만의 어린이이다. 말라리아로 매일 1,500명의 어린이가 생명을 잃고 있다.

‘Stop Malaria 캠페인에 참여하고 싶은 성도는 NGO 더멋진세상 홈페이지(abetterworld.or.kr)를 이용하면 된다.

후원계좌: 573-910009-09905

하나은행

문의: 03-2271-2248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STOP MALARIA 캠페인 포스터

자녀신앙교육을 위한 부모 간담회

차세대, ‘부모-자녀 프로그램’ 기획 예정

서빙고 차세대가 지난달 14일 누리홀에서 ‘자녀신앙교육을 위한 부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빙고 차세대 ‘꿈이자리’라는 팅 교역자들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27명(24가정)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녀신앙교육에 대해 고민하고, 교회와 가정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부모들의

그룹별 토의도 이어졌다.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해 우리 가정에서 특별히 하고 있는 것’, ‘아이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 ‘자녀의 신앙교육에서 교회와 가정의 역할 비율’, ‘자녀 신앙교육을 위해 교회에 요청하는 내용’을 주제로 뜨겁게 토의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차세대 사역본부는 이날 간담회에

서 토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3월부터 <가ospel 프로젝트> 교재를 활용한 ‘부모-자녀 프로그램’을 기획할 예정이다.

노희태 목사(차세대 본부장)는 “자녀의 신앙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체는 교회보다 가정”이라며 “부모들이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권면했다.

/ 정현주 기자

BEE Korea, 온비아 1년 과정 개강

BEE Korea(성경연장교육원)에서 ‘온비아 1년 과정’을 개강한다. 갈라디아서, 로마서 8주, 그리스도의 생활 12주 과정이다. 서빙고는 2월 27일부터 월요일 오전, 오후반, 28일부터 화요일 오전반, 3월 2일부터 목요일 오전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양제는 2월 28일부터 화요일 오후반, 3월 2일부터 목요일 오전반, 부전은 3월 4일부터 토요일 오전반, 도곡교육관은 2월 28일부터 화요일 오후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온비아 1년 과정 오전반은 10시부터, 오후반은 7시 30분부터 진행된다. 갈라디아서 과정이 끝나면 1박 2일 성령수련회도 다녀온다. 비율의 삶과 사역을 공부하고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아이스쿨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교재비와 성령수련회 비용까지 포함해서 17만원이다. 과정을 수료하면 필수과목 학점을 인정받는다. 문의: 010-3798-7948

온누리장로합창단 단원 모집

3월 30일까지 온누리교회 장로라면 누구나

온누리장로합창단이 3월 30일까지 단원을 모집한다. 찬양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기 원하는 온누리교회 장로라면 누구나 지원가능하다. 오디션은 따로 없다.

온누리장로합창단은 2012년 10월 7일 창단했다. 평균연령 60세 이상으로 현재 70여 명의 장로들이 활동하고 있다. 단일 교회 장로들만 모인 유일한 합창단이다. 장로합창단은 매년 정기연주회, 교도소, 러브소나타, 미자립교회 등지에서 찬양 특수를 하고 있다. 장로합창단 권오혁 장로는 “새로운 단원들이 들어와서 함께 연습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면서 “더 많은 장로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로합창단은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성가대실에서 연습하고 있다. 문의: 010-8730-6188

1월 양재 세레자

■양재	도용호 윤신희	이정환 서주연
강원갑 550312	민재희 141212	임동윤 160404
노주익 490718	민태규 홍수정	임정규 김지영
신미혜 790322	신유진 151108	조아인 150605
최태진 010623	신진혁 임지원	조현배 유소정
허정은 490217	이서엘 160912	조연우 160405
유아	이현주 정현주	조성윤 윤선민
권다은 150307	이시원 151210	입교
권기웅 김지선	이일복 김재경	권태희 841118
도 윤 150120	이유찬 160316	김의중 830227

대학청년
■여호수아
오주현 840422
최아영 880908
유아
김용하 151214
김윤식 정민주
입교
정대영 841221

외국어 일대일사역자학교 참가자 모집

영어, 일본어, 중국어 ... 3월 2일부터 16주 과정

제3기 외국어 일대일사역자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고, 일대일 제자양육을 3회 이상한 성도가 대상이다. 2월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아이스쿨이나 각 언어권별 일대일 제자양육 담당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성명, 연락처, 공동체명을 적어서 발송하면 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2월 19일까지 해당

언어 수준을 검증하는 인터뷰가 실시된다.

외국어 일대일사역자학교는 통역을 두지 않고 해당 외국어로 외국인에게 직접 일대일 제자양육을 할 수 있는 양육자를 배출하는 과정이다. 3월 2일부터 16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문의 : 영어 010-2128-1347

일본어 010-3287-4511

중국어 010-2658-2955

간증

“영어로 일대일 양육을 받았어요”

나는 스리랑카에서 왔다. 헛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2007년 석사 과정을 공부하던 중에 온누리교회의 일대일 제자양육을 알게 되었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다. 지난해 2월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다시 한국에 오게 됐다. 어느 날 학교에서 우연히 심길섭 장로님을 만났다. 장로님은 나에게 일대일 제자양육에 대해 아느냐고 물으셨다. 장로님과 나 사이에는 언어의 장벽이 있었지만 장로님은 다른 사람에게 통역을 부탁하면서까지 나의 말을 들어주셨다. 그리고 내가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주시겠다고 하셨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심장로님이 일대일 양육자님을 소개해 주셨다. 내 양육자님은 원철호 집사님이었다. 원 집사님이 영어로 일대일 제자양육을 해주신 덕분에 16주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으면서 큰 은혜와 기쁨을 경험한 나는 학교 친구들에게 일대일 제자양육을 소개했다. 그들 중 몇 명은 양육자님과 연결돼서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고 있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온누리교회에 진심으로 감사하다. 영어로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심장로님께도 감사하다.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주신 원 집사님께도 감사하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 싸냥 쿠마라(스리랑카)

양육자: 원철호(제1기 외국어 일대일사역자학교 영어반 졸업)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모집

2월 26일 오후 2시 서빙고 Acts29홀

온누리세라핌합창단에서 단원을 모집한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가 대상이다. 오디션은 2월 26일 주일 오후 2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Acts29홀에서 실시된다. 관심 있는 학생들은 자유곡 1곡을 준비해오면 된다. 악보도 지참해야 한다. 참가신청은 아래 문의 번호로 연락하면 된다.

온누리세라핌합창단은 국내의 선교를 비전으로 창립됐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성가대실과 주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빙고 Acts29홀에서 연습하고 있다. 매년 한 번씩 해외 아웃리치를 다니고 있다. 러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지를 다녀왔다.

문의: 010-2561-8633

24기 전도폭발 훈련생 모집

전도사역본부에서 제24기 전도폭발 훈련생을 모집한다. 훈련 기간은 3월 6일부터 5월 29일까지다. 매주 월요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콘서트홀(지하2층)에서 주간반과 저녁반으로 나뉘어

훈련이 실시된다. 주간반은 오전 10-15시, 저녁반은 19시 30분-21시 30분까지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www.i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7만원. 문의: 02-3215-3214

■ 차세대를 위한 기도



/ 이은영 성도(양지 온누리교회)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하도록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단잠을 허락하시고
 이 새벽에 깨어나
 가장 먼저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되고 소중한 자리에 귀하디귀한 자녀
 들이 함께 할 수 있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로 자라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모와 교사라는 이름으로 맡겨주신 소중한
 이 영혼들을 온전히 섬기고 양육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자녀들을 향한 어른들의 시선이 올바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자유로운 초원의 사자로
 빚어 주셨는데
 고래처럼 헤엄치지 못한다 하여,
 독수리처럼 날지 못한다 하여 쉽게
 실망하는 부모와 교사되지 않게 하옵소서.
 비록 지금은 이른 봄 지천으로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들과 함께 피지 못하고,
 짝조차 읊돌 기미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한 겨울 열음을 뚫고 찬란한 망울을
 터뜨리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강한 손으로 빚은 작품을
 어리석은 사람의 판단과 세상의 시각으로
 상처 주는 일 없게 하옵소서.
 아이들이 세상에서 성공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따뜻하게
 섬기는 일을 자랑하게 하소서.
 비싼 과일, 좋은 음식 해주시 못함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의 본박에
 보여주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게 하소서.
 머리카락부터 발톱 끝까지 사랑하기도
 부족한 아이들이 소중하게 양육되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 그윽한
 아름다운 사람들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세상을
 만들어 가게 하소서.
 흠어져 세상으로 나아갈 때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 대학청년부 리더십컨퍼런스 'The One' 간증



/ 이수지 자매(길공동체)

승리의 전투

매일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지만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발
 견한다. 나 또한 그랬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
 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살아갔다. 때로는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지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졌다. 모든 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치부하고 죄책감에 사로
 잡히기도 했다. 그런 나에게 이번 리더십컨퍼
 런스 'The One' 에서 들은 말씀은 빛으로 다
 가왔다. 특히 조준목 목사님이 '이기는 교회'
 를 주제로 선포하신 말씀이 내 마음 깊이 와
 닿았다.
 성경은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고 약
 속한다. 그런데 왜 교회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
 고, 몸 된 교회인 우리 개개인이 세상에서 말
 씬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지 늘 궁금했다.
 그날 목사님이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해주셨다.
 싸우는 방법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다. 그동안
 주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주님 이름의 권능을
 확고히 믿고 사용하지 않았던 것을 깨달았다.
 컨퍼런스 내내 마음에 깊이 박힌 말씀은 '예
 수님은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

셨다' 였다. 나는 늘 전쟁이 없기만을 바랐다.
 전쟁이 치열하면 피하거나 힘에 부치곤 했던
 내 모습이 떠올랐다. 세상의 골리앗이 나에게
 칼과 창으로 다가오면 나는 기도를 하면서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더 강한
 칼과 창이 없는지를 살폈다.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며 나아
 가야 했다. 주님은 전쟁이 결코 치열하지 않다
 고 하지 않으셨다. 주님의 이름으로 더 강력하
 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떠한 전
 투에서든지 화살을 맞기 시작하면 몸이 둔해
 지고 정신을 잃어간다. 결국 지게 된다. 내 안
 에 있는 죄들도 마찬가지다. 죄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물밀듯이 내 속으로 들어왔다. 그 죄
 가 쌓여 양심이 작동하지 않게 되고 결국 그
 것들이 나를 참소하고 고소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매일 승리의 전투를
 할 것을 결단했다. 다윗처럼 죄들이 생각 속으
 로 들어올 때마다 즉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의 능력과 권세로 대적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이
 미 주님께서 이기셨다는 것을, 나는 주님의 자
 녀임을 선포할 것이다.

■ 남양주 새사람사역팀 간증



/ 남상현 팀장(남양주 새사람사역팀)

춘천 소년원 청소년들과 함께

남양주 새사람사역팀의 새해 첫 번째 사역
 을 앞두고 후한이 찾아왔다. 갑작스런 눈 소
 식에 관사님, 집사님, 순원님들께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춘천 소년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
 소년들을 만나러 갔다. 설렘을 가득 안고 출
 발했다
 춘천 소년원 가는 길에 지난해 여름 만났던
 청소년들의 표정이 떠올랐다. 예배드리는데
 내 표정이 어두운 청소년들을 바라보면서 답
 답했다. 무엇이 내 가슴을 꽉 막고 있는 것 같
 았다. 정말 답답하고 먹먹했다. 그날 교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그 청소년들의 표정이
 잊히지 않았다. 계속 아른거렸다.
 “무엇이 그 아이들의 감정을 메마르게 하
 고, 꿈과 희망을 찾아 갔을까. 어떻게 하면 그
 들에게 이 세상은 꿈과 희망이 가득한 곳이라
 는 것을 알려줄 수 있을까?”
 남양주 새사람사역팀에서 춘천 소년원을
 섬기면서 두 가지 비전이 생겼다. 하나는 눈
 높이를 맞춘 찬양팀을 구성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1대4 나눔' 전략이다. 청소년들
 과 원활한 나눔을 위해서 지난해 9월부터 전
 문 강사를 모시고 '비행 청소년 상담기법' 을
 주제로 강의도 들었다.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찬양팀의 밝고
 쉬운 찬양으로 청소년들이 닫힌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었다. 처음에는 엇박자 박수로 분위
 기를 흐리게 했던 청소년들이 서서히 박자에
 맞춰 찬양을 따라 하기도 하고, 은혜 받았다.
 그들의 얼굴에서 밝은 미소가 보였다. 너무
 감사했다.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사했다. 모
 두 하나님 은혜였다.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중
 심으로 팀원 한 명이 네 명의 청소년들과 한
 테이블에서 앉아서 나눔을 했다.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희망과 꿈이
 가득한 곳이란다.”
 이 희망의 메시지가 청소년들의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는
 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예배당을
 후끈 달아오르게 했기 때문이다. 어느 집사님
 은 청소년 2명이 영접기도를 했다면서 흥분
 하셨다. 너무나 감사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는다.
 사역팀원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먹으면서
 다음에는 청소년들과 더 깊은 나눔을 가져야
 겠다고 다짐했다. 사역 가운데 늘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

■ 1월 세례 간증



/ 황주일 형제(SNS공동체)

인생이 바뀌었다

친구의 권유로 교회에 다닌지 얼마 되지 않
 아 공동체에서 수련회를 간다는 소식을 들었
 다. 전역이 한 달 정도 남았었는데 전역 날이
 공동체가 수련회를 가는 날이었다. '기도' 의
 '기' 자도 모르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
 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날 제가 하
 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의심이 많아서
 하나님을 제 몸으로 느끼지 못하면 저는 하나
 님을 믿지 못할 것 같아요”
 전역 당일 수련회에 참석했다. 첫날은 피곤
 했다. 둘째 날도 역시 피곤했다. 점심을 먹는
 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그냥 믿는 거구나.” 그렇게 저녁 집회가 시작
 되었다. 졸고 있던 나를 광희 형이 깨웠다. 마
 침 원유경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계셨다. 그
 순간 나의 인생이 바뀌었다. 갑자기 내 영혼
 이 공중에 붕 뜨는 것 같았다. 하늘에서 무엇
 인가 내려와서 내 몸과 결합되는 것 같은 기
 분이 들었다. 그 느낌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
 지만 마치 따뜻한 노란색 같기도 하고, 황홀

한 분홍색 같기도 했다. 무척이나 달콤했고,
 포근했다. 그 순간 알게 되었다. 의심이 많던
 나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말이다.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흘렀다. 아무런 소리
 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다 목사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후벼 판다.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몰래 쓰레기통에 우유를 버렸던 5살
 때 기억부터 '내가 그 동안 저질렀던 죄가 이
 렇게 많았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수많은 죄
 가 떠올랐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날부터 나의 인생이 바뀌었다. 죄를 회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다. 나는 요즘
 발라드를 들어도 힙합을 들어도 팝을 들어도
 다 찬양으로 들린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런 자녀가 되고 싶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로 듣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자녀 말이다. 세례를 받으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런 자녀가 되겠다
 고 약속하고 싶다.

장로칼럼

농어촌교회가 살아나야 한다



심길섭 장로
(서빙고 농어촌선교회)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래된 이후 농어촌선교와 부흥은 항상 중요한 일이었다. 130여 년 전 이 땅에 처음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농촌인구는 우리나라 국민의 절대 다수였다. 도시에도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때는 농촌선교가 한국선교를 의미했다. 농촌의 부흥은 한국 교회의 부흥이었다.

지금 한국 교회는 크게 부흥했다. 빛진 자가 빛 갠 심정으로 세계 선교를 하고 있다. 교회마다 '선교하는 교회'의 비전을 갖고 있다. 그야말로 선교대국이다. 이러한 선교 열정에 비해 우리나라 농어촌교회는 소외되었고, 농어촌선교는 구제 차원에 머물러 있다. 농어촌선교에 대한 인식이 도와준다는 생각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농어촌교회의 대다수가 미자립교회다. 영적인 흑암 가운데 방치되어 있다. 농어촌의 현실을 볼 때 농어촌교회의 자립은 어렵다. 주민들의 경제적 여건, 종교적 배타성, 이농현상, 인구의 노령화, 목회자 자녀의 교육문제 등 산적한 장애요인들로 소망을 찾기 어렵다. 어떤 지역은 주민 100%가 복음화되어도 미자립교회를 벗어날 수 없는 열악한 환경도 있다.

농어촌 교회는 핍박, 척박한 토양, 극심한 반대와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세워졌다. 교회가 없는 농어촌 지역을 찾기가 힘들다. 목회자가 없는 교회도 거의 없다.

이제 우리가 농어촌에 관심과 기도를 쏟아붓고, 돌보고 위로할 때다. 농어촌선교의 상

황은 해외 선교지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농어촌 복음화는 현장 목회자의 결단과 헌신만으로 그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농어촌 복음화 문제는 도시교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역적인 여건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 그러하다. 그 지역 속으로 들어가 함께 살고, 함께 호흡하며, 교회가 주민들과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교회가 교회를 섬겨야 한다.

서빙고 농어촌선교팀에서는 227개 협력 교회를 섬기고 있다. 현지에서 생산한 농수산물 판매, 장학금지원, 아웃리치, 교회건물보수, 목회자 부부를 위한 세미나 및 휴식 등의 사역을 하고 있다. 이제는 공동체가 함께 하면 좋겠다. 각 다락방마다 농어촌 미자립교회 한 곳을 섬길 수 있도록 연결하고자 한다. 지난번에 온누리교회를 방문한 지리산선교동우회(진주, 산청, 함양 62개 교회연합)처럼 거점교회를 세워서 섬기고자 한다.

국내 이주민 숫자가 198만 명이다. 멀지 않아 500만 명이 될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인구의 10퍼센트에 육박하는 수치다. 그들이 농어촌에도 정착할 것이다. 농어촌이 그들과 함께 하려면 농어촌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한다. 이단을 이겨내고, 구별하는 경건함이 있어야 한다. 국경을 넘어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다. 이제는 그 경계가 무너졌다. 우리가 사는 곳이 선교지가 되어가고 있다.

한국 교회가 돌이키면 농어촌교회가 살아난다. 한국 교회의 태반 농어촌교회가 회복되어야 한다. 농어촌교회가 부흥될 때 한국 교회의 진정한 부흥이 이루어진다. 농어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노래 러브소나타가 백두에서 한라까지 울려 퍼져야 할 때다. 기도를 부탁한다.

문의: 구자엽 팀장(010-4286-0078)

권사칼럼

멘토와 청년들



이진숙 권사
(관악금천공동체)

나는 요셉 청년부 멘토로 섬기고 있다. 이상준 목사님의 요청으로 청년들의 멘토 역할을 시작했다. 사실 교회의 여러 사역을 알고 있었지만 청년부 멘토는 익숙하지 않았다. 멘토가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했었다.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기기 시작했다. 그렇게 섬긴 것이 만 13년이 넘었다. 처음에는 부담감이 많았다. 청년들에게 신앙적 성장과 더불어 사회적 도움도 되어야 할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당연히 온누리교회 청년들은 대부분 부모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청년들과 함께하다 보니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가족들과 떨어져 홀로 객지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았다. 경제적, 관계적 어려움과 신앙적 갈등에 무방비로 노출된 청년들도 있었다. 위기의 청년들을 위하여 어미의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돌보아 줄 신앙의 선배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섬기고 있는 요셉공동체는 토요일에 예배를 드린다. 타 교회에 소속되어 있거나, 주일에 사회봉사를 하는 청년들이 많다. 토요일에 예배드리고 주일에는 본교회로 돌아가 여러 사역으로 섬기는 것이다. 자원봉사활동도 많이 한다. 특히 청년들과 함께 아웃리치를 가 보면 그들을 더욱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 아웃리치는 멘토와 멘티가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내가 처음 멘토로 섬기

기 시작했을 때 함께했던 청년들이 40대 중년이 되었다. 교회의 동역자로 성장했다. 어떤 지체는 목회자로, 선교사로, 멘토로 섬기고 있다. 세계각지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자로 성장했다. 비전교회에 방문했을 때 자녀 두세 명과 함께 찾아와 인사하면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지 모른다.

뒤돌아보며 느끼는 것이 있다. 멘토는 특별한 사역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냥 한자리에서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고, 자주 만나 이야기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집에 데려와 자고, 고개 끄덕이며 손잡아주었을 뿐이다. 그동안 멘토 역할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또 한 가지가 있다. 바로 일대일 제자양육이다. 청년들을 알아가고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촉매제이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대학청년공동체 멘토들이 매우 적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166명의 멘토님들이 청년들을 섬기고 있다.

기도하기는 더 많은 성도들이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아내고 있는 청년들에게 멘토가 되어주었으면 좋겠다. 멘토들의 작은 섬김을 통해 청년들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삶의 동기가 물질 만능에서 하나님 만능으로 바뀌고, 성경적인 성공이 무엇인지 알게 되며, 세상을 이기는 힘을 기르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성장할 청년들을 기대하면서 장영희의 시집 〈사랑차 조리법〉에 나오는 글의 일부를 나누고자 한다.

“불평과 화는 뿌리째 잘게 다진다. 교만과 자존심은 속껍질째 말린다. 짜증은 송송 썰어 넣은 마음으로 절인다. 실망과 미움은 씨를 잘 빼내 용서를 쏜 물에 데친다. 모든 재료를 주전자에 담고 인내와 기도를 첨가해 쓴맛이 없어질 때까지 달인다. 기쁨과 감사로 잘 씻고, 미소 몇 개를 띄운 후, 깨끗한 믿음의 잔에 부어서 나눠 마시고 싶다.”

신앙에세이



김영배 목사
(서초C공동체)

안식(安息)은 몸과 마음이 쉬를 얻는 것이다. 몸과 마음이 쉬를 얻기 위해서는 하던 일을 잠시 멈춰야 한다. 몸과 마음이 쉬를 가져도 여전히 안식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매번 벌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스스로 안식을 얻을 수 있는가?”, “참된 안식이란 어떻게 주어지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갓난아이에게 안식이란 엄마의 품에 안겨 젖을 먹을 때 차오르는 사랑을 느끼면서 얻어진다. 여기서 아이가 누리는 안식은 모유 수유로 인한 포만감이기보다 엄마와 함께 있다는 관계 속에서 얻는 것이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고백론〉에서 “누구든지 한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에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다

”고 기록하고 있다.

참된 안식은 올바른 관계에서 찾아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고 말씀하셨다(엡 2:14).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를 믿는 성도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안식의 여정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를 잘 마쳤다. 지난 40일을 생각해보면 몸은 고단하고 약간 피곤했지만 도리어 영혼만큼은 안식을 더 절게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쫓기는 삶을 넘어 주님과 더불어 안식의 삶을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일찍이 이런 영적인 안식의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교부들이 있었다. 그들은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의 삶을 살기 위해 세 가지에 집중했다.

첫째, 쉬지 않고 기도했다. 믿음 생활은 곧 기도생활이다. 교부들의 기도는 일목요연하게 짜인 기도가 아니었다. 말씀을 가지고 묵상기

도를 많이 드렸다. 자기중심적 독백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대화로 기도의 깊이를 추구했다. 그들의 기도는 말없이 주 앞에 머물면서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게 되었고, 이는 곧 안식을 누리는 기도로 발전해 갔다. 이들의 꾸준한 기도생활은 주님을 깊이 체험하게 만들었고, 일상 속에서 안식을 누리는 삶으로 이어졌다. 내게 필요한 기도응답을 얻기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 자신을 비워가는 것이었다.

둘째, 고독을 훈련했다. 고독은 과거로부터 자신을 단절시키는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과거는 영광스러운 순간이지만, 어떤 사람에게 고독과 수치스러운 순간이기도 하다. 고독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과거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고독은 현재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나를 찾는 과정이다. 그 과정을 통해 주님의 눈으로 자신을 직시하고, 서서히 과거로부터 벗어나 안식의 마음을 갖게 된다.

셋째, 좋은 신앙공동체에 속해 있었다. “사람에게 상처 받은 사람은 사람에게 치유 받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물론 하나님께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전제가 있다. 사람에게 상처받은 영혼은 여전히 사람을 두려워하고, 공동체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상처를 치유 받았다고 홀로 살아갈 수는 없다. 회복의 과정에서 무조건 사랑해주고, 수용해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나야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 영혼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품어주는 순교 공동체는 그 영혼을 안식의 여정으로 인도해 준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들이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벌써 한 해를 시작한지 한 달이 지났다. 올해 우리 모두의 인생이 참된 안식의 여정이 되었으면 한다. 육체의 쉬를 추구하기보다 경건을 추구할 때 참된 안식의 삶을 살 수 있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쉽을 얻기까지 싸우라

〈13면에 계속〉

“안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서 마지막 작품이다. 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첫 번째 작품이다.”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쉽지는 가장 마지막에 나오지만 의도는 가장 첫 번째입니다. 천지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삶의 쉽표가 아니라 삶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것을 ‘안식을 향한 싸움’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같이 너희 형제들에게도 쉽을 주실 때까지 말이다. 그들 또한 요단 강 건너편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한 후에 너희는 너희가 소유하게 된 땅으로 돌아가라”(신 3:20).

이 말씀에서 쉽은 단지 육체적 쉽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쉬셨다는 것과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요단 동편 싸움까지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할당을 받았습니다. 헤스본과 옥이라는 두 나라를 점령할 때까지만 모세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땅을 먼저 분할을 받았으니 두 지파 반 사람들은 그 땅에 머물러서 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형제들이 모든 민족들이 쉽을 얻기 까지 너희 가운데 싸울 수 있는 자들은 함께 같이 가서 싸우고 돌아와야 한다. 너희들의 쉽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함께 가나안 정복에 참여하고 다시 돌아와라.”

그래서 처와 자녀들은 요단 동편에 놔두고 남성들이 요단 강 건너편에 가서 싸우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만 누리는 안식에 머무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의 안식이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나만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모든 영혼에게 안식이 임할 때까지 계속 싸워야 합니다.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전쟁에서 힘써 싸워야 합니다. 광야 40년 시대 이후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히브리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얻었다고 기록해야 하는데 히브리어 4장 8절에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른 날에 대해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쉬셨던 것처럼 그 자신도 자기의 일을 쉬기 때문입니다”(수 4:8-10).

이 한 구절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압축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에 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안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천지창조 때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일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것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공담은 다른 민족을 침략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 지정된 장소로 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차 우리에게 올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얻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영적 싸움이고 거룩한 전쟁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여호수아’는 헬라어로 ‘예수스’

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택하신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이름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였지만 그는 장차 오실 진정한 안식의 그림자, 모형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 불순종하면 패배

태초에 하나님의 안식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출애굽 세대가 가나안으로 가는 안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과거의 안식입니다. 다윗이 바라보았던 사람들의 안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믿는 우리들이 히브리어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정에 들어가야 하는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재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종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안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하게 될 종말, 바로 그 종말은 창조질서의 회복이 이뤄지는 날입니다. 심판이 이뤄지는 동시에 하나님의 안식이 회복되는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은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 안식을 위해 싸우는 상황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이미 맛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안식은 완성된 안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싸우는 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대상자들과 싸우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승리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안식을 향한 싸움에서도 순종함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그 전쟁의 법칙은 간단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요, 불순종하면 패배입니다.

여러분, 왜 잘 쉬어도 진정한 쉽이 없는 것일까요. 오히려 쉬면서 더 싸웁니다. 몸은 쉬는데 관계의 쉽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영혼의 쉽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쉽은 단순한 육체적 쉽이 아닙니다. 마음과 영혼의 쉽,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안식을 향하여 싸우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안식과 쉽을 빼앗는 자들과 싸우는 삶이 주어져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통일칼럼

통일은 북한 동포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통일을 이루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6.25 전쟁 이후 한반도는 강대국의 세력 다툼 현상이 되었다. 내부적으로 반공 이데올로기와 좌파 이데올로기로 인한 분열이 심각했다. 휴전선은 미국을 비롯한 유엔연합군과 소련 및 중국의 군사력이 균형을 이루면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휴전선 자체가 강대국들이 부딪치고 있는 현장인 것이다.

미국이 약화되고 중국이 강해지면서 한반도는 강대국에 의해 다시 한 번 요동칠 수밖에 없다. 6.25 전쟁은 공산이데올로기 확대 정책으로 생긴 것이다. 공산주의의 폭력성을 경험한 국민들이 친미와 반공을 중심으로 ‘반공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며 한미애호가 되었다. 반공 이데올로기는 당연하고 지혜로운 선택이었으며, 전쟁 이후 64년 동안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었다. 초강대국 미국의 군사력 덕분에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대한민국이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외국 군대가 주

둔해야 나라의 안보가 지켜지는 것은 분명 극복해야 할 과제다. 통일된 국가를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역사적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결과물인 반공 이데올로기는 한반도에 자유민주주의 통일국가를 세우는 데 한계가 될 수밖에 없다.

분단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던 미국이 약해지고,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중국이 강력해지면서 반공 이데올로기가 흔들리고 있다. 또한 6.25 한국전쟁의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공유하는 세대들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반공 이데올로기가 발전된 경제와 민주화를 누리는 세대들에게는 더 이상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있다. 반공 이데올로기 세대들은 군사독재를 국가안보와 경제발전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들여 군사독재, 재벌독점 등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개혁이 부족한 반면, 젊은 세대들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파생된 양극화, 세계적인 경제침체 및 청년실업,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불투명성 등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 계급투쟁적인 이데올로기에 경도되어 있다.

동방의 이스라엘

진보세력으로 자칭하는 좌파 이데올로기의 주장은 군사독재에 대한 저항, 통일지향, 반미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주장들은 6.25의 상처와 거리가 먼 젊은 세대들에게 반공 이데올로기보다 우월한 이념으로 보인다. 분노에 호소하는 좌파적인 정책들은 감성적인 젊은 세대들의 공감을 사고 있다. 그러나 진보세력들은 변화되고 발전된 대한민국의 역사를 친일과 독재와 부패의 역사라고 주장하며 은근히 북한 정권이 역사적 정통성이 있음을 부각시킨다. 또한 국제역학관계를 무시한 반미는 한반도를 중국에 종속시키면서 좌파 이데올로기나 주체사상으로 한반도를 통일하는 재앙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남북 간의 이데올로기 전쟁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대한민국의 승리로 사실상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좌파 이데올로기가 대한민국을 흔들 수 있는 이유는 반공 이데올로기의 수명이 다했기 때문이다. 이제 새로운 시대정신을 창출해서 북한주민들도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이념이 수립되어야 한다. 분열된 대한민국이 먼저 새로운 정신으로 통일되어야 남북

통일의 길이 열릴 것이다.

통일도 어렵지만 통일 이후가 더 어렵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는 중국과 러시아와 국경이 맞닿는 나라가 된다. 이때도 통일 한국이 독립국가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한반도가 열강의 세력다툼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지혜롭고 강력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 남북 모두가 원하면 통일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 스스로 분열과 분단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변 강대국의 힘겨루기에 흔들리고 있다. 공산주의에 가장 큰 피해를 받았던 교회가 반공 이데올로기의 중심이었기에 이제 새로운 통일 시대를 열 정신을 창출할 역사적 책임도 교회에게 있다. 분열된 한국과 남북한을 하나로 통합하여 동방의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는다.



이은일 장로
(통일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

14 온누리신문

게시판

2017년 2월 5일(주일) | 제1134호

서빙고 O2. 793.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3부 오전 11:30 본당 4부 오후 1:50 본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일본어통역 지원)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본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본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시간: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임선양 팀장(010-9782-7733)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하태일 팀장(010-3798-3148)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 (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윤명자 팀장 (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 전도본부 (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영선 팀장(010-3474-7635) 일본어예배 매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영어예배 매주일 오후 4:00 본당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안산 - 주일예배 러시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Onnuri hall 캄보디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Peace 302 미얀마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2 몽골어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1 네팔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3 열방 예배 09:00/11:00 안산M센터 Manna hall 태국 예배 14:00 안산M센터 Peace 303 스리랑카 예배 11:30 안산M센터 Peace 304 베트남 예배 11:00 안산M센터 Peace 305 필리핀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1 다문화 예꿈 10:30 안산M센터 Dream Kids Room 다문화 꿈꿈 11:00 안산M센터 StarTree 다문화파워웨이브 14:00 안산M센터 StarTree 서빙고 몽골어 예배 14:00 선교관 401호 러시아 예배 14:00 선교관 301호 네팔 예배 14:30 선교관 402호 아랍 예배 14:00 본관 B102호 매월 첫째주 선교관 402호 다문화꿈꿈예배 15:00 선교관 403호 인천 몽골어 예배 13:00 프리스페이스3층 평택 몽골어 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8:0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8:00 JDS홀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정혜경(010-8562-2133)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 (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12:15~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오전 10시30분~12시30분 -서튼은행(010-9117-9325) -서빙고출발 09:00, 양재출발 09:30 -Acts29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셋째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세라 선교사(010-4029-7601) 서빙고 주일 7부 예배 싱어 모집 자격: 온누리교인 장소: 서빙고 본당 시간: 매주 주일 저녁 7:15~10:15 문의: 정은경 팀장(010-6354-1127) OEM한국어교실 봉사자(교사)모집 서류: 신앙간증문, 자기소개서 자격: 등록교인, 일대일 수료자 문의: korean@onnurienglish.org 서울역 노숙인 의료 및 미용 사역 일시: 매월 셋째주 목요일 (2월 16일) 6시 30부터 9시까지 장소: 실로암사우나 후문 사단법인 참좋은 친구들 예배당건물 대상: 의료, 미용사역에 관심있는 모든 분 문의: 윤상엽(010-9439-1180) 김선아(010-6773-2136) 꿈아이를터 모집 기간: 3월 29일~6월 7일(10주) 시간: 수요일 오전 10:40~오후 12:40 장소: 선교관 2층 꿈아이를 회비: 15만원(임금 전액순) 문의: 김경희 코치(010-8877-3584) 꿈아이를터 교사 모집 분야: 데코, 찬양, 반주, 음향, 소그룹, 자료 제작 등 문의: 길혜영 전도사(010-3174-8107) 안산M센터 토요일 탁구 봉사자 모집 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이후 대상자: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 외국 인 유학생 봉사자: 탁구 가르칠 강사(7부 이상), 강사 보조(스태프) 문의: 김재현 집사(010-2724-4563) 두란노문고 서빙고점 직원채용공고 모집: 형제 1명(87년~98년) 서류: 이력서,자소서,신앙고백서(두란노서원 홈페이지양식 참조) 문의: 02-796-2310 양 재 O2. 570. 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Rock 5세 ~ 초등1(충성홀 11:30) Jesus Crew 초등2 ~ 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 ~ 고등 (충성홀 9:00) 도곡교육관 주일 9:00 예배 성인예배: 사랑홀 (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 (한국어) 영아부: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교육관 꿈아이를(B동 1층) 유년부: 도곡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11: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 (영어) Hope Zone(Newborn~Age4) : 도곡교육관 꿈아이를(B동 1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Joy Zone(Grades3~6) : 도곡교육관 온유홀(A동 2층) Middle School Group(Grades7~8)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High School Group(Grades9~12)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오후1:30)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렘청년부예배: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제라르 티네베)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9108-8383,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배수연 간사(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김정숙 팀장(010-4946-3832)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나라와 통일과 평화를 위한 기도 모임 살롱기도회 일시: 매주 월 19:30 양재 비전홀A 문의: 김두진 총무(010-6298-6318)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목 10~12시 반 경찬홀 문의: 김은지(010-3285-1726) 양재 실전기도학교 일시: 3월2일~5월18일(12주) 10시~12시 30분 장소: 기쁨홀 강사: 강은혜 목사 회비: 3만원 문의: 문선희 팀장(010-6212-3451) 25기 청소년(into) 캠프 일시: 2월 13일~15일(월~수 2박3일) 강사: 하신주 선교사 외 대상: 청소년(중2~고3), 일시 귀국한 청소년 유학생 장소: 파주영산 수련원 회비: 16만원 문의: 010-9291-8384(전화접수) www.into7.net 참고 *게시판광고미감목요일오후4시

부 천 O32. 322.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7:00/2부 오전9:00/3부 오전11:30/4부 오후 2:00/5부 오후4:00(대청예배)/6부 오후7:00(부흥예배) 새벽기도 월~토 오전5:20 본당 차세대 예배 영아부~오전9:00, 11:30 / 유치부~오전9:00, 11:30 유년부~오전9:00, 11:30 / 초등1부~오전9:00 초등2부~오전11:30 / 유초등부~오후2:00 중등부~오전11:30 / 고등부~오전9:0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심야예배 매주 수 오후 9:00 한사랑예배(탈북민) 매주 오후 2:00 3층 꿈아이를 사랑부예배(장애우) 매주 오전 11:30 3층 꿈아이를 어린이영어예배(JEM) 오전 9:00 비전홀	수 원 O31.895.6500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 4부 오후 2:00 / 5부 오후 7:00 대학청년 주일예배 대학부 14:00 경찬홀, 청년부 15:00 사랑홀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온누리워십 매주 수 오후 7:40 차세대 주일예배 영아부 오전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오전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초1~3학년), 11:30(초1~2학년) 사랑홀 / 초등부 9:00(초4~6학년), 11:30(초3~4학년) 경찬홀 / 소년부 11:30(초5~6학년) 믿음홀 / 중등부 9:00 비전홀 / 고등부 9:00 믿음홀 영어예배 (어린이&중고등영어) 11:30 비전홀	대 전 O42.825.3642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본당 /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오후 2시 본당 / 4부 오후 4시 본당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5 본당 토요새벽기도회▶ 매주 토 오전 6:0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본당 차세대주일예배 예꿈(36개월~7세) 오전 09:00 꿈땅(초1~초6) 오전 09:00 영아부 오전 11:30 유치부 오전 11:30 유년부 오전 11:30 소년부 오전 11:30 초등부 오전 11:30 중등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9:00	남양주 O31.56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09:00 본당 /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오후 2:00 본당 주중예배 온누리미션예배(인도,네팔) 매주 토 오후 7:00 사이닝글로리 새벽예배(월~토) 오전 5:20 3층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수요목양예배 오후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오전 11:30 2층 예꿈홀 유치부 오전 9:00 2층 예꿈홀 유년부 오전 9:00 2층 꿈땅홀 소년부 오전 11:30 2층 꿈땅홀 중등부 주일 오전 11시30분 기쁨홀 고등부 주일 오전 09시00분 기쁨홀
평 택 O31.651.9680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오후 2:00 본당(대학청년)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온누리워십 수 오후 7:30 본당 How Mission 목 오후 7:30 비전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꿈아이(영아) 오전 11:30 본관2층 꿈이지라는땅 오전 9:00 본관2층 파워웨이브 오전 9:00 파워웨이브교육관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20 본당 주일국제예배 몽골어 예배 11:30 드림홀 인도네시아어예배 11:00 인도네시아 웰터	인 천 O32.437.9686 주일예배 송도 컨벤시아 성인 1부 오전 9시 / 성인 2부 오전 11시 30분 / 성인 3부 오후 2시(컨벤시아 2층 볼룸) / 청년부 오후 2시 113호 / 차세대예배 11시 30분 영아부 104호 / 유치부 110호 / 유년부 107호 / 초등부 113호 / 어린이영어 예배 오후 2시, 109호 프리스페이스 6층 중등부 오전 11시/고등부 오전 9시/대학부 오후 2시 프리스페이스 3층 사랑부 오전 11시 30분 / 몽골어예배 오후 1시 주중예배 - 프리스페이스 6층 새벽기도회(월~토) 5:2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부흥예배 매주 수 오후 7:40	강 동 O2.47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프라이미스청년) 오후 2:00 본당 프라이미스U대학부 오후 2:00 사랑홀 차세대예배 (주일) 예수님의꿈아이(영아부) 오전 11:30 기쁨홀 예수님의꿈아이(유치부) 오전 11:30 두란노홀 꿈이지라는땅(유년부) 오전 11:30 드림홀 꿈이지라는땅(초등부) 오전 11:30 사랑홀 파워웨이브 오전 9:00 두란노홀 사랑부 오전 9:00 사랑홀 주중예배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20 본당 수요오전예배 오전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본당	양 지 O31.331.8171 주일 성인예배 1부 예배 / 9:00 / 2층 김사무엘홀(본당) 2부 예배 / 11:00 / 2층 김사무엘홀(본당) 3부 두드림예배 / 14:00 / 지하1층 박모세를(대청) 주일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영아) / 11:00 / 3층 주선애홀 (본당영상 총계예배) 예수님의 꿈아이(유아) / 11:00 / 지하1층 무어홀 예수님의 꿈아이(유치) / 11:00 / 지하층 위더스홀 꿈이지라는 땅(유년) / 11:00 / 2층 아벨젤라홀 꿈이지라는 땅(초등) / 11:00 / 지하1층 킬보튼홀 파워웨이브(중·고등) / 11:00 / 지하1층 박모세를 주중예배 새벽예배(월~토) / 5:20 / 1층 시안홀



성경 속 다양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의 방향을 짚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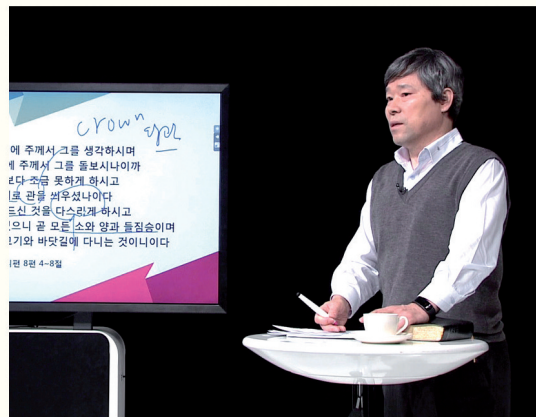
나침반 바이블
다시보기



성경을 여는 열쇠, 창세기

방송 :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은혜의 책 창세기
성경의 처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알아봅니다.



강사: 강성열 교수 (호남신학대학교)

임마누엘 이야기, 마태복음

방송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구약과 신약의 징검다리, 마태복음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임마누엘의 언약을
살펴봅니다.



강사: 양형주 목사 (대전도안교회)